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

아시아여성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하나금융나눔재단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

아시아여성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하나금융나눔재단

차례 Contents

06 책을 펴내며

08 격려사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

대상

12 배희주 이상

최우수상

22 최려화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이에요.

25 나승미 드라마 같은 우리 가족

우수상

28 서민수 희망 가득한 아름다운 무지개의 나라

34 조예나 엄마의 나라 카자흐스탄

37 이정홍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위기

장려상

40 나마조바마리나 슬기로운 집콕 생활

43 박민아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 개구리가 되기까지

46 홍장쥔 멘토링 선생님이 선사한 용기와 희망

49 김수아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 나의 가족

51 민선옥 나의 꿈, 엄마의 꿈

외치다, 맞서다, 바꾸다 미래 행복 추구를 위한 메아리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원장 장민선입니다. 먼저 <결혼이주민과 배우자의 모국어로 쓰는 한국살이 체험담 공모전>을 지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신 '하나금융나눔재단'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COVID-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을 통해 한국에서의 희로애락의 삶을 기꺼이 나누어주신 응모자 한분 한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가 점점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민자와 유학생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이미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전체 한국 인구로 보면 4%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은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며 사회 구성원입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아시아여성연구원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조사연구와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3년 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계속된 <모국어로 쓰는 한국살이 체험담 공모전>은 지금까지 약 3,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참여한 의미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쓰는 한국살이 체험담 공모전>은 그 첫해부터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견지한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의 갈 길이 먼 한국의 위치를 직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글의 주제와 내용이 풍성해지고, 참여하는 분들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 공모전은 결혼이주민들이 말로 쉽게 풀어내지 못했던 '속 이야기'들을 익숙한 모국어로 토로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해왔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드러난 이야기도 발표되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적극적인 삶의 행보와 보람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문화·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사연들은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익숙한 모국어를 통해 자신이 겪은 문화적 다양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은 결혼이주민들의 주체적인 한국살이를 지지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적 실천의 장을 제공했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본 체험담 공모전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삶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소통하는데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시아여성연구원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국어로 쓰는 한국살이 체험담 공모전>의 성과확산을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험과 그들의 솔직한 속내를 직접 듣고 나누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백일장>을 시행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중 우리 곁에 있지만 정작 잘 알지 못했던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연을 듣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주배경 청소년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묻어나는 속마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실상 그 누구도 같지 않고, 각자가 고유하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름'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름'이 풍요로움이 되는

경험은 아직 낯선 것 같습니다. 한 공동체의 다양성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백일장>이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사회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가는데 귀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베트남,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200여 명의 이주민과 배우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모국어로 보내주신 원고는 한국어 번역을 통하여 예비심사 및 1, 2차에 걸친 본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각국 모국어로 작성된 원고를 우리말로 번역하되 본래의 의미와 정서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분야 전공 교수님들과 전문 번역가 및 대학원생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공모전이 계속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주배경 구성원들이 삶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더 행복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이 책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아시아여성연구원의 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장 장 민 선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올해에도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과 함께 <결혼이주민과 배우자의 모국어로 쓰는 한국살이 체험담>과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백일장>을 수행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수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심사위원님들과 아시아여성연구원 장민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한 모국어로 쓰는 한국살이 체험담이 어느덧 13회를 맞이하였고, 2018년부터 시작된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백일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결혼이주민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글로 잘 표현해주셔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작품들 속에는 한국살이의 애환과 희망, 슬픔과 기쁨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이웃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있고, 차별과 소외,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여전히 쉽지 않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에 아파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글을 읽으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나와 다르다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돌아도 보고, 한편으로는 힘든 여건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고맙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임으로써 편견과 차별이 아닌 공감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많은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나아가 서로가 긍정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본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 대하여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미래의 우리는 조화롭게 공존하며,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문집 속의 저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저자들과 공모전 참가자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차고 멋지게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함 영 주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

아시아여성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하나금융나눔재단

: 대 상 :

이상

배희주

"진주야."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계셨다. 냉기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아빠… 어떻게 여기에…"

말을 채 이어나가기도 전에 방문 너머 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려 왔다.

"여보, 진주야. 얼른 나와서 아침 먹어야지!"

"어떻게는, 우리 딸. 얼른 나가서 밥 먹자. 엄마 기다리신다."

아,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구나. 나와 엄마의 곁으로 돌아오셨구나… 더 이상 엄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셋이다.

"네 아빠, 이불만 개고 금방 나갈게요."

향긋한 카레 향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네에 자그만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 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시는 게 힘드실 법도 한데, 취향이 확고한 나를 위해, 미숙한 딸을 위해 엄마는 몇 없는 휴일에도 분주히 움직이신다.

"늦게 나와서 많이 식었어, 얼른 먹어 딸."

크게 한 숟갈을 떠서 먹었다.

"와, 진짜 맛있다."

따뜻했다. 엄마의 요리는 언제나 따뜻하다.

"이게 얼마만의 식사야, 꼭 꿈만 같네. 누가 너무 얼굴을 안 비춰주셔서."

어머니께서 장난 어린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하하 당신도 참… 오랜만에 당신 밥 먹으니 너무 좋네. 참, 요즘 공부는 잘 되어가니 딸?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괜찮고?"

"네, 뭐 그럭저럭…"

아버지는 중국에서 작은 자개 공장을 운영하신다. 그 탓에 일 년에 세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가족은 원래 서울의 한 빌라에서 살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 경기도의 작은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어 나와 엄마는 현재 가게 안의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집이 없다는 것이, 나의 방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우울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울컥했다. 몰려오는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채 다시금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먹었다.

"맛있어 딸?"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엄마가 바라보셨다.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때마다 더 맛있지?"

"그래? 육수 보느라 제대로 신경 못 썼는데. 우리 딸 입맛에만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환한 미소가 따뜻함을 한층 더해주었다.

"오랜만에 세 가족 모인 날인데, 오전에 잠시 어디 다녀올까? 가고 싶은 곳 있어 딸?"

아버지께서 여쭤보셨다.

"아 여보, 추석 연휴라 문 못 닫는 거 알잖아요. 베트남 축구회 예약도 있어서… 오후부터 문 열기로 했어요."

또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는 휴일에도 영업하시는 때가 많다. 제대로 된 직원 하나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을 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안타까워 나 또한 주말을 즐길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다음에 가면…"

"아, 여보 이따 저녁에 오랜만에 서울에서 민이 아빠랑 밥 한 끼 하기로 했어. 삼 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밥만 먹고 들어와서 마감 도와줄게. 딸, 엄마 잘 도와드릴 수 있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늘 이런 식이다. 일 년에 두 번, 아버지를 뵐 기회가 있지만 이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버지는 항상 친구분들과의 술자리가 우선이다.

"그래요 여보… 딸, 다른 건 괜찮으니 문 열기 전에 장 한 번만 봐줘. 부탁할게. 숙주 한 박스랑…"

"알겠어요. 엄마. 잘 먹었습니다."

잊고 있었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는 것을.

저녁에 약속이 있으시다던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아침 식사 이후 일찍 집을 나섰다. 나 또한 옷을 갈아입고, 시장에 나가려던 길이었다.

"딸, 시장바구니 끌고 가. 숙주에 고기까지 사려면 무겁잖아."

"됐어요. 엄마, 저는 손으로 드는 게 더 편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창피했다. 내가 아줌마도 아니고… 괜스레 한 번 더 권하실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연휴 첫날의 낮이란… 거리에는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혹은 시내 구경 나온 또래 친구들, 빵빵거리는 차들로 붐볐다. 조금 더 지나 신호등을 두 번쯤 건너면, 10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큰 전통 시장이 있다. 이곳에는 장을 보러 오신 아주머니들로 붐볐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에게는 후자에 가깝지만, 어차피 가야 할 거 조금이라도 더 가까웠으면 싶은 마음도 든다.

여느 때와 같이 비교적 거리가 먼 정육점에 가장 먼저 들렀다.

"진주! 오늘도 엄마 가게 도와드리는구나. 연휴 첫날부터 고생이네. 소불고기 1.5mm, 맞지?"

"네 아저씨. 오늘은 3만원 부탁드려요."

새벽 일찍부터 시작되는 일에 지치실 법도 한데, 항상 웃으며 나를 반겨주신다.

"곧 선거네! 올해는 첫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도… 진주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언제인지 모르게, 바로 옆에서 과일을 파시는 명식이 아저씨께서 옆에 와 말을 걸어오셨다.

"거 참, 애 앞에서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건너편 고깃값이 조금 더 저렴한 곳을 두고, 내가 여기에 오는 이유 중 하나다. 아저씨는 나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

"자, 여기 다 됐어. 기름도 몇 점 넣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후 시장을 두어 바퀴 더 돈 후에야, 가게로 향할 수 있었다. 시간이 꽤나 지체된 것 같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야! 혹진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몸이 얼어붙어서인지 바뀐 신호에도 선뜻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다. 뒤에서 누군가 어깨에 손을 둘렀다. 같은 반 황지성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뒤를 돌아봤다.

"으응… 여기서 보네."

"왜 이렇게 쫄아 인마, 쌀국수 팔러 가는 길이냐?"

"한 뚝배기 하실레예?"

옆에서 홍구현이 거들었다. 엄마의 가게는 항상 나의 놀림거리이다. 이 순간마저 시장바구니를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하는 내가 미웠다.

"근데 너 못 보던 저지네? 곧 생일이라고 새 옷 샀나 봐? 나도 한 번 입어볼래 줘봐."

"나 지금 엄마 심부름 중이어서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럼 지금 벗어서 나 줘. 빌려 입고 너 생일 전에는 돌려줄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가지고 있던 숙주 박스를 내팽겨쳤다.

"아…!"

"그냥 네가 곱게 줄래, 아니면 다른 한쪽 팔도 그렇게 빼줄까?"

"야야, 애 울겠다. 생일 전에 돌려준다잖아. 쌀국수, 나도 좀 빌려 입을게."

다시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그 상태로 도망치듯 그 녀석들을 뒤로하고 빠르게 뛰어갔다.

"휴우…"

"딸, 왔어? 안 뛰어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 옷은 또 왜 그렇게 입었어?"

오후부터 오픈한다던 엄마는,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부터 가게 문을 열고 계셨다. 황급히 뛰어 올라온 나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며 다가오셨다.

"아 늦으면 늦는다고 뭐라 그러고! 맨날 이렇게 무겁게 장이나 보고 짜증 나게 하…"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바보 멍청이. 그런 이유도 아니면서.

"죄송해요… 무거워서 그랬어요. 손님 올 때까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게요."

언제쯤 나는 솔직해질 수 있을까. 엄마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진주야, 진주야!"

크게 울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잠깐 자고 일어난다는 게 벌써 두 시간이나 흘렀다.

"딸!"

방문 너머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서둘러 머리를 가다듬고 밖으로 나갔다.

"딸, 안 부르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Em ơi!"

어느새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Dạ!"

"딸아 미안한데, 청경채랑 쑥갓 하나만 더 사 와줄래?"

오늘만 두 번째 장보기다. 손님이 이렇게나 붐비는 날엔,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없었다.

이번에도 행여 누가 볼세라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와 신호등을 건너려던 참이었다.

"빵!!!!!!!!"

굉음과 함께, 삽시간에 큰 승합차가 나를 덮쳤다.

지잉… 지잉.

진동 소리에 잠을 깼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버지는 일 년에 세 번, 제사나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다.

"벌써 가을이라고 쌀쌀한가…"

냉기가 나를 감쌌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고요한 아침이, 아직 잘 적응되지는 않는다.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두 통. 2020년 9월 29일… 오늘은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 날이다.

지잉…

또다시 울리는 진동에 전화를 받았다.

"진주야, 이번에 안 내려오는 거 맞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혹 내려올까 봐서"

수화기 너머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고모,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안 내려갈게요. 설에 내려갈게요. 엄마도 돌봐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 아버지 상은 내가 잘 차릴 테니 걱정 말그라. 엄마는 괜찮지?"

"네… 회복 중에 계세요. 고모도 고생 많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참, 계좌 보내주시면 돈 바로 부쳐드릴게요."

멍했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몸을 일으켜 세웠다.

부엌에 나가 어젯밤 끓여놓은 카레를 데웠다. 냉장고를 여니 시큼한 향이 코를 찔렀다. 일인용이라기에는 비교적 큰 테이블에, 밥그릇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크게 한 숟갈을 떠 입안에 욱여넣었다. 우리 엄마 솜씨만 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다시금 크게 한 숟갈을 떠,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감정과 함께 삼켜버렸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여유 있게 출발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출근길의 서울은 언제나 북적였다.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람들… 괜스레 느껴지는 괴리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전, 한 외국어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었다. 가급적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준비할 새도 없이 바로 일정을 잡은 것이다. 오늘 진행할 인터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오셨어요?"

본관에 들어서 두리번거리는 나를 보며 경비 아저씨로 보이는 분께서 여쭈었다.

"아, 다문화 교육원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초행길이라."

"6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 씨. 제가 인터뷰 관련해서 전화했던 김종현이고요, 여기는 은미 선생님."

6층에 올라와 다문화 교육원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곳을 따라 들어가니, 선생님 두 분께서 나를 반겨주셨다.

"안녕하세요. 백진주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하러 오신 거 맞죠? 여기 앉으세요."

"인터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인터뷰는 그렇게 딱

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진주 씨의 삶을,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느껴왔던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이점이나, 혹은 불편했던 점들 등등… 겪어왔던 것을 편하게 이야기 해주면 돼요. 면접 같은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앞에 커피도 좀 마시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고, 21살 백진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주 씨 그럼 올해 대학교 2학년인가요?"

"아,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학년으로만 따지면 올해 4학년입니다."

"와, 학교를 2년이나 일찍.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학교를 남들보다 일찍 들어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나 동기보다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로 양국을 오가며 지내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사를 할 때도 많았는데, 초등학생 때는 쭉 한국에서 지내다가, 중학교 때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어요. 이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할까 하다가, 검정고시를 택하고, 수능을 일찍 봐서 학교를 남들보다 일찍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럼 검정고시를 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되면 항상 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른 경로를 알게 되어 그쪽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아까 베트남에서 적응이 힘들다고 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나이대의 또래들 사이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큰 놀림거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벗어나면 그게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국경을 넘어서도 편협한 시선은 존재했던 것이죠. 물론, 친구들과는 대체로 원만하게 잘 지냈지만… 몇몇 짓궂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가 그럼 진주 씨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겪어왔던 힘든 단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이, 진주 씨를 어떻게 비추고 있나요?"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에도, 단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국을 오가며 자연스레 이중언어를 학습할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덕에 현재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모두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 조금씩 쌓여왔던 부분들이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우연히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와 일찍부터 교육 쪽과 통·번역, 언어와 관련된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중언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인재라니…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장점인데요? 그럼 끝으로… 혹시 진주 씨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기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답변하기 조심스러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 분명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소심해지고, 불만을 가지던 때가 많았어요. 가끔가다 그때를 회상하며 후회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더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나를 대하는 다른 친구들의 태도도 달라졌을까, 싶은 후회요. 한 번 놀림을 당하고 나니, 이후에도 계속 누가 먼저 다가오기도 전에 제가 저 스스로를 숨기며 자아를 묶어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저는 스스로가 다문화가정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존감을 더 높이며 지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도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이로 봐주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가정의 자녀들이니,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신 후에야 건물을 나올 수 있었다. 햇볕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하늘은 청명했지만, 바람은 조금 매섭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엄마의 부재중 한 통이 있었다.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딸… 엄마는 괜찮아. 밥도 먹고 약도 먹었어. 딸 오늘 인터뷰 있는 날이라고 했지? 인터뷰는 잘했어?"

"네 엄마, 잘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뭐가?"

"엄마 덕분에 인터뷰했어요. 낳아주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드높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딸 잘 지켜보고 계시죠…?"

그렇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 최우수상 :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이에요.

최려화

저는 동산초등학교 5학년에 다닙니다.

엄마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일했습니다. 저를 유치원에 보내고 일 가시고, 다른 친구들이 다 집에 가도 저는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혼자 놀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일찍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는 집에서 동생과 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처럼 한국에 시집온 사람을 이주 여성이라고 하고 우리 집을 다문화가정이라 하고 저는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전교생 가운데서 저만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다문화에 관한 안내장은 저만 받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개구쟁이 남학생들이 저에게 "엄마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말 좀 해봐! 중국어 동요 좀 불러 봐!" "짱깨야" 하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구석진 곳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우리 엄마만 중국 사람인

지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외모도 한국인과 똑같이 생겼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들으시면 더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문화 센터에서 진행하는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아동복지 센터에 수업도 가고,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에게 중국어도 가르치시는데, 왜 외국인이라고 차디찬 눈초리를 받아야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라도 한 듯이 저를 토닥거려주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런데 친구들은 엄마가 중국인이라고 자꾸 장난쳐. 속상해…"

엄마는 저의 얼굴을 쓰다듬어주셨습니다. 엄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딸,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혼자 참고 견디고 있었구나. 그럴 때면 엄마에게 말해줘. 엄마가 우리 딸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줄 수 있단다. 엄마는 중국 사람 맞아. 중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자랐지. 그러나 엄마의 할아버지는 경주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가셔서 사셨어. 그러니 엄마는 중국에서 살았지만, 선조는 한국인이란다. 엄마는 중국에서 살면서도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컸어. 엄마도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에 와 보고 싶었단다. 엄마는 예쁜 두 딸을 낳아 키우면서 한국의 엄마로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단다.

엄마는 착한 아빠를 만나 살면서 중국인 엄마이지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힘을 썼단다. 엄마 발음이 안 좋아서 외국인 티가 날까 봐 라디오도 많이 듣고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단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하는 '이중 언어 활용 한국어 강사 양성 교육'도 받고 한국어 공부도 나름 많이 했어. 몇 년 전부터는 아동복지 센터 아이들에게 중국어 가르치러 다니고 있기도 하지. 엄마가 딸에게 일찍 알려줘야 했는데, 참 엄마 때문에 속을 많이 태웠구나!" 하

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속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두 딸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보다 훨씬 더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정성을 많이 쏟으십니다. 동생은 동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침에 늦잠 자는 동생을 깨워 유치원에 챙겨 보낼 때가 많지만 화를 많이 안 내십니다. 엄마는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꼭 쓰십니다. 동생의 부족한 점이나, 안 좋은 습관에 대해 편지로 적어 보내십니다.

처음 우리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놀랍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상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저한테 "너희 엄마 중국 사람이지?"라고 묻는다면 저는 허리를 쭉 펴고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로 "그래, 우리 엄마 중국 사람 맞아. 그런데 우리 엄마 똑똑하다. 중국어 배우고 싶으면 우리 집에 놀러 와. 아마 우리 엄마도 너희들을 환영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다문화가정 중에서 움츠러들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새롭게 자라나는 소중한 새싹들입니다. 다문화가정 친구들은 엄마 나라 언어, 아빠 나라 언어를 잘 배워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 중국 문화를 퍼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멋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문화라는 이름에 편견을 깨트리고 씩씩하게 자라겠습니다. 저와 같은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일반 가정 친구들과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 최우수상 :

드라마 같은 우리 가족

나승미

저의 어머니는 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18살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일을 경험하였고, 잊지 못할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게 기억하는 5살 즈음 어릴 적 기억입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봉고차로 이동하고 있을 때 저와 남동생은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순간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아버지가 얼른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라 차 밖으로 나왔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봉고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팔 같은 모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가 엎드려서 울고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팔 한쪽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팔 모형이 아닌 어머니의 팔이었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오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머니는 오른팔을 영영 잃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을 굽힐 수도 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팔은 일반적인 모습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흉터에 파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을 안 꺼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어머니는 외출하실 때면 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반팔을 입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사우나를 자주 갔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팔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약 7살 정도였을 때 기억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날이면 폭력적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는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방에서 저와 동생이 자고,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이 주무시던 날, 술을 드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남겨두고 모두 다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쫓아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잡혀있던 제 손을 뿌리치시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린 저와 동생은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도 금방 나갈테니 이모와 함께 나가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모 손에 이끌려 눈이 오던 집 밖에서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오셨고 그제야 저는 당시의 제 차림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본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점퍼를 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지만 이 일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저에게 마음 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초등학생으로 13살이 될 무렵 기억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술을 마시며 저와 동생을 괴롭혔고, 옆에 있으면 자욱하게 나는 담배 냄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흘러 제가 중학교 2학년에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결핵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병원에 1년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복을 입고 아파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다니요. 약이 너무 독하여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고 다리가 퉁퉁 붓고, 살이 벗겨져 점점 더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두 눈에서 왜인지 모를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돌아가시면 어쩌지?', '나와 동생 둘이서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하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 등 불안한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에 계시던 작은 고모가 광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마. 집에 있는 도장 잘 관리하고. 작은 아빠가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돼. 작은 고모도 믿지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학생인 저에게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나중에 동생과 저, 아버지 이렇게 셋만 있을 때 "아빤 안 죽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의지 덕분인지 그 이후로 점점 아버지의 병환은 좋아졌고 1년 뒤,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드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시지만 몸이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고 술도 끊게 되셨습니다. 술을 끊게 되니 무서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져 서로 장난도 하고 가족끼리 영화관 데이트를 하러 가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좋고, 부유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살 제 인생에 드라마 같은 스펙터클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드라마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엔딩을 알지 못하지만 긴 인생에 초반부에서 이만큼 행복하게 극복해냈으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께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제 곁에 언제까지나 있어 주세요.

: 우수상 :

희망 가득한 아름다운 무지개의 나라

서민수

우리 엄마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에서 아름다운 꿈을 마음에 품고 무지개의 나라 한국 땅을 밟았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한국의 영어 이름은 "코리아~Korea" 대신 "무지개의 나라~솔롱거스 Солонгос"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지구상에서 "무지개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가 몽골밖에 없다. 무지개는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이미지다.

엄마는 한국 문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저를 낳았다. 한국에서 현실적인 경제 생활문제로 스스로 배우는 부족한 한국말로 저하고 형한테 한글도 가르쳐주시고, 한국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심지어 몽골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쳐주셨다. 외국인 엄마로서 부족한 한국 지식 때문에 한국 엄마들 보다 저를 너무 부족한 아이로 키우게 될까 봐 항상 걱정을 했다. 교육에 대한 욕심이 많은 엄마께서 저한테 뭐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몽골어, 영어 수업을 깊게 듣거나, 각종 컴퓨터 자격증을 따거나 봉사활동도 같이 가주거나, 체험을 통해서 더 소중한 학습 기회는 없다고 하시면서 각종 체험활동에 보내기도 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아무한테 뺏기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두면 당장 안 써 먹어도 그것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엄마는 한국에서 다문화 이해 강사로 유치원부터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했다. 2014년도에 스승의 날을 맞아 엄마가 학부모 명예교사로 위촉장을 받고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명예교사로 수업을 했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교육주간을 종종 진행하였는데 그때 엄마를 강사로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몽골 전통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그 후로부터 애들이 제 엄마를 몽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교실에서도 밖에서도 놀리기 시작했다. '몽고반점이 어디 있니? 보여줘'라고 했고 교실에서 칭기즈칸 노래를 농담으로 부르거나 내 뒤에서 몽골 명칭으로 속닥거리거나 아주 다양하게 놀리고 거슬리는 행동들이 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선생님들이 "다문화"라는 말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비다문화가족 아이들과 구별하고 차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다문화 학생 이리 와. 다문화 관련되는 책이 왔다"라고 말씀하니까 애들이 나를 향해 "야 너희 엄마 몽골이잖아. 선생님 불러 빨리 가라"라고 말했다. 그 순간을 나는 머뭇거리고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학교에서 주는 각종 신청서, 보호자 동의서에 엄마의 몽골 이름을 쓰기가 싫어졌다. 엄마 이름이 나와 있는 걸 애들이 보고 또 놀릴까 봐 걱정부터 앞서서 신청서랑 동의서를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 안 한 적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속한다는 한국과 몽골. 역사 수업에서 빠짐없이 꼭 나오는 몽골과 한국 역사. 나는 과목 중에서 역사 수업을 제일 싫어했다. 애들이 나를 놀릴 거리가 또 생길 거란 말이다.

역사적으로 칭기즈칸과 몽골 제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마병 군단을 이끌고 중국을 시작으로 중아시아, 서남아시아, 러시아와 동유럽 대부분 지역을 정복해 거대한 몽골 제국을 세웠다. 이런 거대한 몽골을 고려{한국}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역사 수업 시간에 몽골은 우리 고려를 수차례나 침입해서 엄청난 고통을 준 민족이라고 나오면 애들이 다 나를 째려보거나 너희 엄마 나라가 우리나라를 100년 가까이 간섭을 했던 놈들 하면서 지금은 몽골이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비웃으면서 서로에게 몽골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일부러 나한테 들리

게 큰소리로 대화를 했다.

또한, 한국과 몽골은 역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중에서 "기황후"라는 역사 드라마를 엄마가 즐겨봤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드라마가 재미있었지만 몽골 사람들이 봤을 때 몽골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쉽다고 엄마가 말했다.

다문화라는 단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졌고 내 엄마는 외국인이라서 내 인생이 원망스러웠다. 학교에 엄마가 오는 것도 더 싫어졌다. 학교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엄마한테 "나는 왜 다문화야? 다문화 되기 싫어"라고 운 적이 있다.

엄마는 다문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 주민일 뿐 오히려 너는 한국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 보다 두 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장점이고 너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리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문화가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엄마랑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다문화 문제로 자주 다툴 때가 많았다. 이보다 비다문화가족 아이들과 차별하는 사례는 끝이 없었다.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하는 차별의 의미….

안 그래도 엄마는 타국에서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살면서 도와줄 가족도 없이 외국인 여성이 혼자 힘으로 아이 둘을 키워 가는 데 수없이 힘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학교 문제까지…. 아 ~ 엄마가 그동안 마음도 골치도 아파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셨을까….

엄마가 고향이 그립고 가족도 그리워 많이 울기도 하고 한국에 삶이 힘들어 지쳐서 울기도 했다. 아마도 몽골 남자와 결혼했다면 여기보다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몽골 중, 고등학교에서 능력 있고 자신 있고 능숙하게 여유 있게 일을 하는 멋진 여성이었는데 말이다. 한국에 와서 힘들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버거운 짐을 메고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엄마 앞에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을 받으러 갈 때 직원이 외국인이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자주 당해 왔다. 그때마다 엄마께서 법이 바뀌어서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어떤 책을 꺼내서 여기에 "외국인이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서류 발급을 안 해 줬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먼 시청까지 발걸음을 돌려서 서류 발급을 안 준다고 호소했다.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하셔야만 일이 해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복잡한 서류 과정 일들은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복잡한 서류 과정을 해결할 거다. 엄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엄마와 나 사이에서 큰 장애물은 바로 몽골어 공부였다. 학교에서 받았던 다문화 관련 상처들이 깊어서 그랬는지 몽골어를 배우는 것은 거리감이 있었다. 몽골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만 몽골어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엄마랑 똑같이 몽골에서 오시는 몽골 엄마들의 아이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도 했다. 엄마는 나뿐만 아니라 몽골 엄마 자녀들이 엄마 나라 언어를 모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몽골어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려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서 몽골에 자주 가지 못해서 몽골 문화를 잘 몰랐다. 학교 문제도 그렇고 몽골어를 잘 안 배우려고 하는 나에게 몽골어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하려고 엄마가 비행기 표를 큰마음 먹고 샀다. 드디어 엄마의 고향 몽골로 떠났다. 막상 몽골에 가니 몽골 문화, 음식, 날씨 등 많은 부분이 한국과 달랐다. 몽골의 시내하고 시골은 완전히 달랐다. 시내 울란바토르는 서울처럼 큰 빌딩, 아파트가 많은데,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끝없는 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전통 집 "게르"하고 5종 가축 양, 말, 소, 염소, 낙타랑 같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 삶이 그대로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운 몽골 정말 인상적이었다.

외할머니가 나를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한참 나를 안았다.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나를 돌봐 준 적이 있다. 엄마 여동생의 아들이 나랑 나이가 똑같아서 금방 친해져서 재미있게 놀았지만, 그의 여동생이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 우리는 서로 나

라의 말을 모르지만 손짓과 발짓하면서 소통을 했다. 급할 때는 엄마의 찬스를 써가면서 놀았다. 나는 여동생이 없어서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 여동생의 마음을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몽골어도 못 하고 여동생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화가 날 때가 있었다. 어떨 때는 몽골어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다.

몽골에는 "хэлтэй бол хөлтэй-외국어를 잘 알면 먼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됐고 몽골의 문화를 조금이나 근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다. 막상 한국으로 돌아갈 때 몽골 여행이 너무 좋아서 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서 공항에서 한참 울었다. 한국에 와서 모국인 한국어 못지않게 몽골어를 깊이 있게 배우겠다는 큰 다짐을 했다. 엄마랑 몽골어 공부도 같이하고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몽골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어느 정도 몽골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몽골어를 가르쳐주시는 멘토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가 제일 재미있고 좋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 하니까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 수업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린다.

멘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저를 칭찬을 했다. "민수는 몽골어 발음도 좋아 최고! 숙제도 미리 해오고, 수업에도 적극적이고, 집중력도 좋아" 이보다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그 칭찬들을 기억하며 또 듣고 싶어서 몽골어를 더 잘하려고 했다. 결과는 이번 몽골어 1학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멘토 선생님의 칭찬을 곱씹고 또 곱씹고 앞으로도 몽골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가끔 몽골에 있는 친척에 전화해서 몽골어로 안부 인사를 하면 친척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다. 다음 몽골 여행 갈 때 몽골어로 싸울 정도로 실력을 쌓아 놓아야지. 그토록 싫어하는 역사 수업을 몽골 여행을 통해서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께서 한국사 책을 많이 사주시고 지금은 역사 수업에 빠져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문화와 200만명의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나라다. 더 이상 내 엄마는 외국인이라서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동안 엄마한테 서운한 말을 많이 했었고 오직 나만 힘들다고 정말 이기적이고 소심한 아들이었다. 커서 공동체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꿈이 없다. 꿈이 없다고 해서 억지로 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도전을 엄마가 응원해 준다면 못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도전하다 보면 내 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고 내 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어른이 될 때 좋은 추억으로 떠올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꼭 이뤄졌으면 하는 꿈이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현명한 아들, 엄마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머니." 이 말을 어머니께서 나는 멋지게 성장할 거다. 엄마 나 믿지???

나의 소중한 엄마를 사랑한다.

: 우수상 :

엄마의 나라 카자흐스탄

조예나

제 이름은 예나이고 11살입니다. 저희 집은 다문화가정입니다. 엄마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러시아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1년은 카자흐스탄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때부터 계속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갈 때가 더 좋습니다. 보통 겨울방학 때 새해가 되기 전에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는 1월 1일을 잘 쇠지 않지만,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는 1월 1일이 매우 큰 명절날입니다. 12월 31일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큰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지난해에 감사하고 작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소원을 종이에 써서 새해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날은 여러 색깔의 장식으로 집을 꾸미고 창문에는 눈꽃 모양을 오려 붙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크고 예쁜 트리를 장식합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마법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새해 첫날이 오기 전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12시가 되면 모두 밖으로 나가 불꽃놀이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서로 새해가 온 것을 축하해 줍니다. 다들 잠이 들 때가 되면 '제드마로즈'라고 불리는 러시아 산타클로스가 와서 트리에 선물을 놓고 갑니다. 저한테는 이날이 제일 기분 좋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어떤 이유로 가지 못하게 되면 매우 슬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별로 춥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겨울에 부는 춥고 따가운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겨울방학에 카자흐스탄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게 되면 대부분 집안에서 지내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 밖이 너무 추워서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고 집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어떨 때는 눈이 무릎까지 내려서 눈 속에서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겨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눈사람을 만들고 눈으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눈싸움을 하고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기도 합니다. 제가 겨울을 매우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일도 카자흐스탄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러 많은 친척들이 외할머니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제 생일을 꼭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넷이서만 축하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카자흐스탄에서처럼 그렇게 신나지는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 생일날 엄마가 크고 신나고 요란한 파티를 열어줍니다. 거기에는 이모들과 삼촌들 사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시를 외어 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만을 축하해 주고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제가 제일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느낌입니다.

제 외할머니는 러시아문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댁에 가면 책을 많이 읽어 주시고 러시아어도 가르쳐 주십니다. 외할머니 덕분에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아직 읽는 법만 배웠습니다. 동생은 아직 쓸 줄은 모릅니다. 다음번에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면 외할머니가 동생한테 러시아어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러시아 음식을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 채소를 씻고 껍질을 벗기고 썰기도 합니다. 샐러드를 무치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빨간 사탕무로 만드는 보르쉬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프를 함께 만

들고 여러 가지 빵을 굽기도 합니다. 제 생일날이면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제가 직접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케이크를 장식합니다. 저는 이 케이크를 이데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케이크는 언제나 제 생일날 카자흐스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엄마가 러시아 음식을 자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러시아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많지 않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년 내내 한국식으로 먹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좋지만 연말이 되면 카자흐스탄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며칠 동안 지내다 보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그래도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음식점과 가게가 많이 있어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두 분이 한국 음식은 전부 다 매운 것만 있는 줄 아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잡채, 불고기, 갈비탕같이 맵지 않은 다른 음식을 드셔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친척들이 저를 불러 한국 가게에 자주 가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사촌들에게 어떤 과자가 맛있고 어떤 과자가 별로인지 어떤 게 맵고 어떤 게 안 매운지 제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한국 식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번역해 드리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들이 많은 것도 좋고 두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통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어와 다른 외국어를 공부해서 적어도 2개 언어를 더 말할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니면 중국어 중 하나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문화, 역사, 전통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언어와 상관없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을 사랑하고 러시아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 우수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가족위기

이정홍

전 세계 사람들에게 2020년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세계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폭발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태풍처럼 전 세계 곳곳을 휩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악영향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수많은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바로 눈앞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생이별을 경험했고, 또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 경제적 파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사랑하는 이를 준비 없이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슬픔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어려움들은 저의 가족 역시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폭발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가족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을 무엇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영향이지" 엄마는 화가 나고 상기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의 대답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16살 여자아이입니다. 2016년 7월에 저와 엄마는 함께 한국으로 왔고 우리보다 1년 정도 일찍 온 아빠와 언니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저의 가족은 계속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한국에서 작은 중화요리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 식당을 연 날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음식점은 비록 넓지 않고 오래된 인테리어의 가게지만 이곳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여기서 일하셔서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식당이 없다면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게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식당은 인기가 많은 유명한 식당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셔서 입소문으로 제법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모님 가게에 있었을 때 어떤 손님이 "중국 사람이 하는 음식점인데 괜찮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다른 식당으로 가자"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단지 저의 부모님이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 오지 않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언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오고 안 오고는 손님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걱정도 생겼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서 우리 식당이 폐쇄되면 어떡하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수입은 나날이 적어지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아껴 써야 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다음으로 저는 인종과 국가에 대한 차별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우리 가족은 다 중국인 탓에 차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을 때나 평상시에는 중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사람처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조금 높여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좋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의한 판단을 합니다. 저희 언니는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지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 4년 이상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현지인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차별은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점차 사라졌지만 이런 상황이 여전히 슬프기만 합니다.

코로나는 학생인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공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가는 것이 몇 번이나 연기되었고 학교에 갔을 때는 그동안 못 보았던 시험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한 주에 5과목의 형성평가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반 친구들은 전보다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온라인 수업은 배운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잘 보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에게 너무 많은 과목을 짧은 시간에 복습하고 한국어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시험을 못 보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들은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 소득의 감소, 차별, 공부의 어려움으로 내가 받은 스트레스의 원인은 모두 전염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는 단지 우리 가족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이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전염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빨리 사라져서 우리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 그리고 온 세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보고 싶은 친척들을 만나고, 내 가족을 걱정 없이 안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지루하고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장려상 :

슬기로운 집콕 생활

나마조바 마리나

2020년 10월 8일 오늘 아침, 아침 8시에 눈을 떴다. 뜨자마자 초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의 자가진단을 체크해 준다. 그리고 다시 잠든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 일 나가셔서 내가 아침을 챙긴다. 동생들이 자는 동안 소시지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만들어준다. 구운 빵 위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소시지를 잘라서 올린 다음에 그릇에 세팅한다. 동생이 많이 먹어서 양을 많이 준비한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점심엔 비빔밥을 하거나 김치볶음밥을 만든다. 학교 다니면서 급식 먹을 때가 그립다. 왜냐하면 한국 학교 급식은 다양하고 양도 많고 맛있기 때문이다. 나는 미역국하고 스파게티, 김치 반찬을 좋아한다.

한국에 온 지 어느새 4년 반이 되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러시아 사라토브이다. 엄마는 고려인이고 아빠는 우즈벡사람인데 러시아에서 12년을 살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살았다. 우즈벡에서 3년을 살다가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가시고 1년 후 온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 1년간 엄마와 떨어져 살다가 헤어졌던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해서 깜짝 놀랐다. 엄마인데 왜 어색할까? 어색함이 사라지는 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나,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남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여동생은 나보다 두 살 어리지만,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어를 많이 어려워하고 잘 몰라서 바로 중학교에 들어갈 수 없

으니까, 여동생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을 같이 다니고, 같은 중학교 같은 학년을 다녔다. 성안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러시아에서 온 친구는 나와 여동생, 그리고 데이빗이라는 남학생 셔 명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국어를 잘 못 했고, 한국의 중학교가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교복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부모님은 일하러 가셔야 했기 때문에, 동생이랑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집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교복을 사러 갔고, 그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다녔다.

올해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많이 설레고 긴장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공부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나 중학교 선생님과 선배들은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울 거라고 얘기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야자도 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여행도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축제와 공연에 참여하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졌다. 내가 입학하려고 한 학교는 다자인문화고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예쁜 교복으로 유명하다. 교복 입고 고등학교에 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이 취소되고 학교 등교일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5월 27일에만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랑 2m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얘기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고등학교 생활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을 사귀었다.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을 친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신 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서로 못 만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반톡에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서로 친해지고 친구의 소개를 하는 과제를 내주셨다. 처음에는 어렵고 망설였지만, 은지랑 보미가 먼저 말을 걸어서 긴장이 덜 되고 대화하기가 쉬워졌고 재미있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 같은 동네 친구였다. 그래서 우리 셋이 8시 10분에 서원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55번 버스를 탄다. 버스 한번 놓치면 지각이라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아침에 같이 등교하는 게 너무 좋다. 은지와 보미랑 같이 교실에 들어가니까 덜 떨리고 긴장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매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이번 주에 학교 가면 다음 주에 집에서 온

라인 수업을 듣는다. 우리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줌 수업할 때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한다. 하지만 남동생이 어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리나~'하고 부른다. 나는 하던 공부를 멈추고 가서 동생을 도와준다. 그리고 다시 나의 줌 수업을 키고 수업을 듣는다. 휴대폰으로 줌 수업을 들으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 불편하다. 하지만 컴퓨터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 여동생은 온라인 수업이 어려웠다고 얘기했다. 화면만 보고 수업을 듣다 보니 눈이 아프다. 혼자서 장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 온라인 강의를 켜 놓고 스마트폰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동생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온라인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도 바로 물어보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주는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고 채점을 하는 경우 답은 맞았는데 반점이나 스페이스바 등의 사소한 것들로 인해 퀴즈가 틀렸다고 채점이 될 때 불편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함께 이야기하고,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 오빠는 작년에 비자 연장하러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별 입국 제한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오빠가 너무 보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오빠랑 온 가족이 다 만났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있게 되었다. 점점 집콕 시간이 길어지고 텔레비전 앞에만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봤다.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하고 유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온라인 도서관에 가입해서 책을 읽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독서가 가능해서 너무 좋았고 사이버 도서관은 자동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반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이 편리하고 재미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나 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으로 쉼을 얻었다. 정말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 장려상 :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 개구리가 되기까지

박민아

"네가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우물 안의 개구리야."

2017년 겨울, 그토록 길던 5년간의 중국 생활이 얼마 안 남자 앞으로 다가올 생활이 기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한 학년에 25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국제학교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고 상을 휩쓸었다. 한국인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 '열심히 하는 애', '상 많이 받는 애'로 불리곤 했다. 국제학교 생활 내내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알찬 학교생활을 했다. 하지만, 한국을 가게 돼서 모든 게 달라졌다. 아버지의 귀임 일정이 잡히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어느 날, 엄마가 나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네가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우물 안의 개구리야. 한국 가면 너보다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많은 거야. 걔들은 네가 여기서 학교생활 재미있고 쉽게 했을 때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을 거거든" 난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에는 어마 무시한 애들이 많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국어를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기에 겁이 났다.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애써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래도 난 잘 적응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2017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12월 18일, 나는 정말 소중했던 친구들을 뒤로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한국 중학교가 개학하기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매일 도서관을 가고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다니며 준비를 했다. 특목고에 가고 싶은 마음에 수학 학원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처참했다. "넌 기본이 안 되어있어. 다시 시작해야 해." 예상 못 한 결과에 죽어라 수학을 풀었고 따로 공부했지만 늘지 않았다. 내 존재와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엄마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엄마는 왜 나를 중국에 있는 국제 학교에 보냈어? 내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2018년 3월 4일, 학교 첫날, 모든 게 나에겐 새로웠다. 초등학교 2년 다녀본 게 다라서 한국 학교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전학생이라 받은 마지막 번호 34번이 조금 속상했다. 개학은 같이하는데, 성은 박 씨인데, 왠지 모르게 소외당하는 기분이었다. 소외감이나 서운함을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 느꼈다.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필통이 생각이 안 나서 pencil case가 한국어로 뭐였는지 물어봤을 때 친구들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황당하고 어이없어하면서 웃었을 때 속으로 몇 번이고 울었다. 중국에서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며 온근슬쩍 나를 무시하는 말들로 내 심장에 칼을 꽂았다.

학교 개학과 동시에 나는 새로운 수학 학원을 찾았다. 많은 걸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다. 그저 조금만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차근차근 가르쳐줬으면 했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수학 학원이 내 인생에서의 전환점이 되었다. 집 바로 앞에 있던 크지 않은 수학 학원에서 우리 학교 다른 반 친구들 4명을 만났다.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인기 많은 애들' 이었다. 첫날엔 기가 죽었다. 나랑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애들 같아서 절대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 예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중학교 2학년은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보냈다. 남들보다 부족한 걸 아니까 더 노력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병원에 꼭 가보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중도 귀국 학생이 한국 학교에서 경쟁하려면 다섯 배는 더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수학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이었다. 2학년 때 전학을 온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인기 많은 애들' 무리에는 끼지 못했다. 친구들은 쉽게 만들었지만 의지할 만큼의 관계로 발전하진 못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달랐다. 학교에 일찍 와있으면 거의 매일 심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내 반에 와서 같이 떠들었고 쉬는 시간에도 찾아왔다.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좋게 소개해줬으며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 친구들과 있으면 모든 게 좋았다. 같이 공부할 때도 너무 행복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나에게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해줬다. 그때만큼은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그 동네에서 자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첫 학기 수학 시험을 망쳤을 때 먼저 나를 찾아와서 안아줬던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위로됐다.

수학 학원 선생님은 정말 치열했던 학교생활을 도와준 정말 소중한 존재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선생님은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좋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반에 배정해줬다고 한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적이 안 오를 때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많은 것들을 풀었다. 선생님은 절대 틀린 문제에 대하여 왜 틀렸는지 왜 모르는지 야단치지 않았고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내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줬으며 최대한 잘 적응하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한 학년 동안 여덟 개의 상장을 받았고 성적은 급속도로 올랐다. 드디어 우물 안이 아닌 우물 밖 개구리가 되었다. 더 넓은 곳에 적응하기까지, 그곳에서 자유롭게 폴짝폴짝 뛰기까지 분명히 끊임없는 노력도 있었지만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소외감을 느낀다. 하지만, 사람만큼 그 소외감을 덜어 내주는 존재는 없다. 그로부터 오는 소속감은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 장려상 :

멘토링 선생님이 선사한 용기와 희망

용장원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한국 생활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었던 선생님을 만났다.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분이다.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 멘토링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나랑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나던 날, 나는 소심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도록 국어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중국에서 태어난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바람에 한글 자체가 몹시 생소하고 어려웠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별도로 한글 깨치기들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다문화 멘토링에 지원한 선생님의 얼굴은 걱정으로 변하는 표정이 뚜렷했다. 어휘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마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니 선생님으로선 당연한 일이었다. 기가 죽어 자신감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격려를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얼굴을 눈치껏 엿볼 수 있었다.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시작하면서 우선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면서 한글을 완벽하게 깨쳤다. 선생님과 같이 책을 읽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난생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다. 받침이 있어 어려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오빠 강남스타일' 노래를 비롯하여 한국의 동요와 가요를 선생님과 함께 부르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하기 실력 또한 동시에 늘릴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다.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어 일기 쓰기 숙제에 매번 라면 먹기와 태권도 이야기만 쓰던 나. 이랬던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 일일이 지도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의 모습, 만들고 싶은 친구, 선생님과 함께 보았던 영화에 대한 내 느낌을 적어 보곤 한다. 누군가와 말하기를 망설였던 내가 선생님과 만나는 날 먼저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맛있게 먹은 급식을 자랑할 만큼 말하기에도 용기가 넘친다.

선생님과 인천 자유 공원에서 산책을 마치고 차이나타운 방향으로 내려오던 날, 선생님이 나의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나는 정수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유가 뭐냐고 추가로 물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고 싶어서요."라고 답했다. 순간 선생님은 나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꿈이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선생님도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와의 공통점을 알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편의점에 들러 사주었던 부라보콘의 맛은 유난히 달콤해 지금도 혀끝에 남아있다.

나는 이렇게 선생님과 서로의 꿈을 알게 된 후 선생님이 마치 누나가 된 것처럼 친밀감을 느꼈다. 선생님과 나는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린 레고 블록을 같이 맞출 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엄마는 기초적인 한국어로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했다. 엄마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겪는 일상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여러 가지 고민을 선생님과 서툰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선생님은 어느새 우리 가족에겐 누구보다도 든든한 멘토링 선생님이 되어 주셨다.

멘토링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선생님과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가며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선생님과 계속하여 이어갔다. 공연 관람, 박물관 구경, 프로 축구 경

기 관람, 지하철과 버스 타고 서울에 있는 고궁에 가보기 등 남들에게는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는 경험들이 나의 한국 생활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주 배경을 지닌 나를 공부도 못하는 놈이라고 같은 반 애들이 무시하는 소릴 수없이 들으며 방과 후 집에 처박혀 외롭이로 지냈던 나에게 선생님과 손을 잡고 성장한 1년은 용기와 희망이 미래를 향해 질주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작년 생일날, 사회성이 부족한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친구들을 맥도널드로 초대해 파티까지 열어 축하해 주었던 선생님의 배려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이 나에게 선사한 용기와 희망은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갈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더 행복한 나로 만들어 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 선생님이 보고 싶어 카톡으로 연락을 해야겠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 장려상 :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 나의 가족

김수아

가족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2018년 5월에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우리는 태국에서 먼저 2달을 살았습니다. 원래는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태국 분이라 제가 태국어로 말은 할 수 있었는데, 읽고 쓰는 것은 못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보자고 하셔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한국으로 여행을 온 적도 없었고 아빠도 16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6년이라는 세월 속에 한국인 아빠조차도 너무도 변해버린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엄마와 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어색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가족을 만나는 것은 좋았지만 한국의 사람, 언어 등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표정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모, 삼촌, 작은 아빠, 작은 엄마와 사촌을 만났는데 아빠의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운 고향에 온 것이 무척이나 설레고 벅찼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빠는 남아공의 생활을 불편해 하셨

고, 향수병에도 걸렸습니다. 한국은 남아공과 7시간 시차가 있었고 아빠와는 달리 저는 친구들이 없는 것에 고민이 많았고, 한국어를 못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센터를 찾았고 일주일 정도 그 센터에서 공부하다가 '다애다문화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먼저 교장실로 가서 교장 선생님과 저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한 후에 예비반으로 갔습니다. 자기소개를 다 한 후에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대하고 계신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한국에서 학교생활은 많이 힘들었고 불안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참고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의 상황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어려움을 우리 부모님께 알리고 깜짝 놀란 우리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 저를 잘 지켜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불안감은 점점 없어졌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편안해지기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며 돌봐주시던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드디어 2019년에는 마음의 병을 치료 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저의 진짜 모습과 성격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남아공에 살았을 때부터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서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이런 평소의 활동들은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큰 빛을 발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습관적으로 많이 도왔을 뿐인데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의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가르침이 먼 이곳 땅에서 저를 인정받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자랑스러워하던 눈을 보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돈을 버는 것이 힘들었고 학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을 장학금으로 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거나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은 일찌감치 남아공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잊지 않고 그 말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자체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힘들 때 도움받은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상상 못 할 정도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훈훈합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2학기에는 학급회장이 되었습니다. 책임감과 더욱 적극적인 성격으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점점 변해가는 자식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한창 고등학교 진학을 걱정했을 때 우리 아빠는 "네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은 저의 공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다애다문화학교'를 다니게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한국어, 문화, 예의 등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도 외국인 학생들이 부모님의 바쁜 일터 생활로 인해 자녀는 방치된 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돌봐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좋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느끼고 자주적인 사고로 인성 좋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가족은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이고,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이 소소함이 소소함으로 그치지 않도록 저도 행복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려상 :

나의 꿈, 엄마의 꿈

민선옥

어른들에게 나는 늘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여의고, 가난한 집안임에도 불평불만 하지 않고 태국인인 엄마 밑에서 바르게 자란 모범생.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어른들의 눈빛에서 나는 항상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돌발 선언을 해버리니 모두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띄워졌을 것이다.

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른 아이들처럼 무사히 졸업한 평범한 학생이었다. 교내 글쓰기 대회가 열리면 나가서 상을 타왔고, 장학금 추천 제도가 있으면 선생님들은 날 추천해 주시고는 하셨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점들이 좋았다. 그러나 고등학교로 올라오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엄마의 고충, 계속 기울고 있는 우리 집안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장학금 하나로 버티기에는 아슬아슬했다.

그동안 나는 잘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보호막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내게 자퇴를 한 이유를 묻는다면 내가 답할 수 있는 답변은 두 가지로 나뉜다. 꾸밈없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집이 가난해서"라는 답을 내놓을 것이고, 거짓이 가미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라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담임 선생님을 제외한 어떤 누구에게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내게 가난은 콤플렉스였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으니까 말이다.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목표였다.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는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홀로 떠안고 있는 엄마가 눈에 밟혔고, 아르바이트에만 몰두하기에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 내 야망이 눈에 밟혔다. 많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난 그 두 가지 모두 하기로 했다.

내게 시급한 건 선생님의 허락보다는 엄마의 허락이 더 중요했다. 외국인이었던 엄마에게 자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말로, 그다음에는 문자로, 마지막에는 직접 편지까지 써서 엄마에게 드렸던 기억이 난다.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드렸던 초등학생 이후로는 엄마한테 편지를 주는 게 처음이었을 것이다. 눈이 안 좋고 한국어를 어려워했던 엄마를 기억하며 글씨는 평소보다 3배를 키워서 썼고, 어려운 단어 대신 단순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했다.

엄마는 내가 자퇴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학교 안 가면 집에서 놀고먹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화를 내셨다. 처음에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자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끈질길 정도로 거의 매일 엄마에게 자퇴에 관한 생각을 밝혔고, 자퇴하고 나면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퇴를 고민하기 시작한 3월부터 10월까지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 10월 25일. 나는 끈질긴 설득 끝에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허락을 받고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나, 자퇴하고 나니 엄마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자주 뵙던 다문화 센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우연히 만나 뵌 날이 있었다. 그 선생님께서는 엄마가 본인한테 자퇴하고 싶다던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했고, 또 내게 자퇴한 걸 후회하지는 않으시냐고 물었다. 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졌다. 엄마와 집안을 위해 선택했던 자퇴가 엄마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순간이 되고만 것이다. 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그때부터 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학교를 나온 내게 남는 건 시간이었으며, 난 그 시간을 꽤 잘 이용했다. 학교에 다닐 때 술

하게 글쓰기 상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문학 공모전에 내가 쓴 원고를 제출했다. 또한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수시로 들어가 내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 운 좋게도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었고, 패기 넘치게 참가했던 공모전에서도 수상할 수 있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난 그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자극을 받아 더 나아갔다. 처음 받았던 월급으로, 처음 받았던 상금으로 가족들과 외식하며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을 때 웃으면서 받아들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웃음은 내가 자퇴를 허투루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해 준 웃음이었다. 자퇴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많은 사람의 충고와는 반대로 난 검정고시도 한 번에 통과했으며, 엄마의 짐에서 자랑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엄마의 짐을 나눠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편견이 날 힘들게 만들었고, 다음에는 자퇴생이라는 편견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제는 상관없다. 엄마와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선사해 주고 싶다.

올해가 지나면 나는 성인이 된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는 돈을 벌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소망이었고, 새로운 소망 하나가 더 생겼다. 엄마는 늘 유튜브에서 바리스타 영상을 보며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태국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했었다. 난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내 꿈이 이뤄진 것처럼 이제는 엄마의 꿈이 이뤄질 차례인 것 같다. 엄마가 엄마의 모국인 태국에서 원하던 장사도 하고, 더는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내게 모든 청춘을 바친 엄마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

펴낸곳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펴낸이 정인선
펴낸날 2020년 12월 31일
기획·편집 권정현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나길 36 숙명 인재관 412호
전 화 02-710-9177
디자인 다인기획

본 사례집은 2020년 하나금융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서의 저작권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온라인 백일장
3번째 이야기

희망으로 행복을 품다